

협회행사 보고 ① ;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 2002년도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는 7월 5일(금)부터 7월 6일(토)까지 양일간 KAIST 서울 캠퍼스 대강당(홍릉)에서 “정보서비스 및 정보원 활용에 관한 최신 동향”을 주제로 2002년도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최석두(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용어 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한글시소러스 구축의 실제”에 대해 발표하였는데, 시소러스 관리시스템은 데이터의 내용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각 응용 및 서비스시스템의 기능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시소러스 관리시스템의 구성, 내용, 인터페이스 등은 설계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실제의 어떤 한글시소러스가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구축된다고 할 때 용어의 수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알 수 없으며, 사용자인터페이스가 신속, 정확, 편리해야 오류 없는 시소러스를 쉽게 구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표준기술형식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한글 시소러스는 다른 전거데이터와 함께 MARC 형식으로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중에서도 국가표준형식인 전거데이터용 KORMARC 형식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용어사전데이터와의 호환성, 그리고 외국과의 데이터협력 및 교환을 위하여 MARC 형식의 시소러스를 MARTIF 형식으로 바꿀 수 있는 기능은 반드시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용어분류에 대해서는 한글 시소러스의 분류체계는 ‘한국십진분류법’, 그 중 세 자리만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1) 모든 분야의 용어를 수용할 수 있는 분류표를 만드는 작업은 매우 방대하므로 새로운 분류표를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분류표를 적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2) 문헌의 분류와 문헌의 주제를 표현하는 용어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3) 한국십진분류법은 잘 알려져 있는 분류체계이며, 의미적 분류체계이고, 문헌의 색인과 검색에 많이 이용하여 검증된 분류

체계이다. 4) 시소러스와 분류표는 원칙적으로 명사류로 표현되는 개념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5) 모든 분야의 용어를 소진시킬 수 있는 분류체계이다. 즉, 모든 분야를 아홉 개 범주로 나누고 여기에 속하지 않는 분야를 0에 배치하여 모든 용어를 소진시킬 수 있다. 6) 각 범주를 필요에 따라 조합함으로써 다양한 분야별 시소러스를 생성할 수 있다. 7) 다른 분류체계와의 호환 혹은 변환이 가능하다. 8) 분류표를 갱신하면 용어분류체계가 갱신되며 분류표의 여러가지 기능을 용어분류에 이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글 시소러스를 구축하는 데 명확히 해 두어야 하는 몇 가지 측면에 대하여 시소러스 관리시스템의 기능과 연계하여 논의하였다. 1) 동사 및 형용사 시소러스의 개발과 용어분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최근에는 전문정보뿐 아니라, 사진, 만화, 영화 등의 영상정보 그리고 음악, 음향 등의 소리정보의 색인과 검색에 동작정보나 감정정보가 이용되며 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사 및 형용사가 필요하게 된다. 동사와 형용사 시소러스는 명사류 시소러스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용어관계, 분류, 구축 등의 측면에 대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2) 패킷지시어에 대한 기본범주의 설정이 필요하다. 패킷의 기본범주는 그 대상분야에 따라 사용 지시어의 종류와 그 수가 달라질 수 있다. 일반성이 있는 기본범주를 전 분야에 걸쳐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3) 다국어 시소러스의 개발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개념이 대부분 외국에서 도입되고, 선진국에 대한 학문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다국어 정보 검색이 요구되고 있다. 대부분의 전문용어사전이 외국어를 대응시키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일 것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국어 시소러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협회행사 보고 ② ; 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 제17차 워크숍

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는 7월11일(목)부터 12일(금)까지 서귀포 칼호텔에서 제17차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 신숙원(서강대학교 로올라도서관장)은 “대학도서관 사서의 전문성 : 문제점과 그 대안책”이란 기조강연에서 지식정보사회에서 대학도서관 사서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격 중 중요한 몇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지식정보사회는 특정한 학문분야, 특히 실용성이 높은 첨단 분야에 깊은 지식과 정보를 가진 전문인을 요구한다. 둘째, 효율적인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제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이 도서관자료와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서관 시스템을 발전시켜야 한다. 셋째, CD-ROM, VOD, 하이퍼텍스트, 웹 자료, 디지털 자료 등에 실린 정보와 지식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어떻게 학생들에게 자료를 이용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도서관 사서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과제이다. 넷째, 외국과의 활발한 학술교류가 진행되는 실정에서 영어 외에 적어도 두서너 외국어는 다룰 수 있는 사서가 있어야 한다. 다섯째, 타도서관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열린 마음과 자세가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대학도서관 사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대학의 정규교과과정을 통한 교육, 세미나, 워크숍 등의 연수교육, 외국 도서관과의 협력을 통한 계속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하였다.

윤희윤(대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은 ‘대학도서관의 학술적 정체성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였다. 학술커뮤니케이션의 주요 수단은 두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하나는 강의, 회의, 세미나 등에 참여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비공

식적 커뮤니케이션이다. 이것은 통상 ‘비공식 연구집단’으로 지칭된다. 다른 하나는 심사제도가 엄격한 학술지 등에 연구결과를 게재·유통시키는 공식적 커뮤니케이션의 형태이다. 그러나 실제로 학술커뮤니케이션은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는 학자집단과 연구단체, 그것을 생산·배포하는 출판사와 서점, 수집·제공·보존하는 도서관과 정보센터, 그리고 이용집단(사회)을 포함하는 복잡한 과정이라고 하였다. 정보기술이 초래하는 접근 채널의 다변화는 대학도서관의 입지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오랫동안 연구자 집단과 더불어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중추를 형성하여 왔던 대학도서관은 인터넷, 출판사, 전자계산소, 정보브로커 등과 경쟁해야 하는 입장이다. 게다가 어떤 학문분야든 ‘지식생산 또는 연구결과의 질적 우수성은 정보접근과 유의한 상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미래의 대학도서관은 본질적 가치와 시대적 소명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정체성을 마름질해야 할 것이다. 대학도서관은 물량보다는 품질을 강조하는 실물 자료의 소장공간으로서의 정체성, 소장자료 및 미소장자료의 서지정보와 원문정보에 접근하는 디지털 게이트웨이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양자를 결합하여 대학의 학술적 구심체로서의 교육 및 연구기능을 지원하는 하이브리드형 정체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술자료의 수집 및 보존, 접근 및 탐색, 그리고 주제별 게이트웨이로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수희(송실대학교 정보지원처 학술정보센터)는 ‘이용자와 사서의 새로운 관계를 위해’에 대해 사례발표를 하였는데, 대민서비스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세 일곱가지에 대해 설

명하였다. 첫째, 응대의 맨 처음은 인사이다. 인사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두 번째 응대는 자기소개이다. 상대방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대화이다. 기본적으로 경어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셋째, 정확이다. 업무처리하는 고객이 믿을 수 있도록 정확해야 한다. 넷째, 신속이다. 고객의 시간은 금전만큼이나 중요하다. 다섯째, 태도이다. 서비스에 있어서의 친절할 태도를 보여야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여섯째, 전송이다. 고객이 돌아갈 때에는 다음 번 만남을 기약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일곱째, 주변 환경이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로 고객과 만나게 되는 상담용 데스크는 낮은 것이 좋다. 그밖에 잠재적 고객들을 위한 이용서비스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전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겠다. 그밖에 이용자의 불만에 대해서는 불만은 불평이 아니라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서는 또한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검색, 정보원의 활용기술 등을 숙지하고 계속 교육이나 사서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식견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고객의 요구조사와 서비스상품을 개발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 이제 소장의 이유만으로 도서관의 존재와 가치를 인

정받기는 어렵다. 고객과의 새로운 관계를 설정해야 도서관 서비스도 달라진다. 발로 뛰고, 머리로 연구하고, 고객의 눈을 들여다보자. 거기에 우리의 가치를 드러내줄 우리의 고객이 있고, 우리가 만들어낼 서비스가 있다.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기뻐할 고객들을 생각하면서 움직임은 한 시도 멈추지 말자고 제안하였다.

김신영(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은 '상호대차 활성화에 따른 외국학술지의 평가에 대한 사례 발표'를 하였는데, 외국학술지 평가는 이용자 중심의 장서관리의 필요성, 분담구독 학술지 선정 과정의 문제, 신규 학술지의 발간 급증과 학술지 구독가격 인상, 불용학술지의 보존문제로 대두되었다고 하였다. 외국학술지 평가는 이용빈도 조사법에 의한 평가, 인용빈도 분석에 의한 학술지 평가, 상호대차 분석, 자관 핵심학술지 선정, 분담구독 목록의 재조정을 통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현장적응성을 가진 학술지 평가방법이 마련되어야 하며, 평가 결과의 현실적 적용, 협의회 기관별 이용자 요구도 분석, 분담수서 목록의 탄력적 조정 모색, 시스템적인 지원 모색, 잉여예산의 효과적인 재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도서관인의 이야기를 실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서관문화 편집실입니다.
 도서관학 및 정보기술의 학술이론과 실무에 관한 논문, 도서관계의 국내·외소식과 사진, 회원, 인사, 도서관과 관계되는 수필 또는 수기 등을 보내주세요.
 도서관인 여러분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 전화 : 02-535-4868
 * 전송 : 02-535-5616
 * E-mail : klanet@hitel.net
 * 주소 : (137-702) 한국도서관협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산 60-1